

63 | 타이어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 변이성 협심증

성별	여	나이	60세	직종	타이어 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 개 요

퇴직 근로자 송○○는 1993년부터 ○○타이어(주)에서 비드제조 작업을 하였다. 1996년부터 흉통이 발생하였고 2001년 퇴사. 2005년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비심인성 흉통으로 진단받았고 2008년 4월 상병은 고혈압, 협심증, 만성 십이지장 궤양으로 진단되어 있다.

2 |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송○○는 1993년 5월 20일부터 2001년 6월 퇴사시까지 ○○타이어(주) ○○공장에서 수동 비드기 운전원으로 작업하였다. 비드제조 작업은 고무를 압출기에 넣어 반제품(휠러와 후랩퍼)을 만들도록 절단, 나비드를 수동 비드 기계에 적재하고 스위치를 눌러 나비드에 휠러를 감고, 손으로 마무리 이음새를 붙이는 것이었다. 현재의 작업환경 노출 평가 결과 분진, 고무흙, 휘발성 유기화합물, 유기용제들은 모두 미미한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유기용제 등 노출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에서 스티렌 등 천식 감작 물질로 알려진 성분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3 | 의학적 소견

퇴직 근로자 송○○는 1980년 말 방직 제조공으로 일하였는데 당시 먼지는 많았지만 사용한 화학물질은 없었으며 건강 영향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993년 5월 20일 ○○타이어에 입사 시 건강하였다고 하며 1999년 상반기 건강검진 시 고혈압 외에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비흡연자였으며 가정 내에서 간접흡연 기회가 다소 있었다. 가정 내 애완 동물을 키우는 등 의심되는 노출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협심증이나 심이지장 궤양 등 유사질환에 대한 가족력은 없었고, 다른 과거 질병력도 없었다. 아스피린 등 약물 복용력은 부인하였다. 2001년 퇴사 후 2005년 임상적으로 비-심인성 흉통, 역류성 식도염, 변이성 협심증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 협심증과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8년 4월 현재 상병명은 고혈압, 협심증, 만성 심이지장 궤양이었다.

4 결 론

근로자 송○○는

- ① 퇴사 3년 후 받은 의학적 진단에서 심이지장 궤양은 치유되었고,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나고 있어 증상은 비심인성 흉통으로 진단되었고,
- ② 객관적인 확진을 받지 못하였으나 임상적으로 진단된 변이성 협심증은 퇴사로 인한 작업환경의 노출 전후를 비교할 때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는데,
- ③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 수준은 허용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과거 노출 수준은 추정에 의존하는 상태이며,
- ④ 변이성 협심증은 일반적인 허혈성 심질환과 다른 병리기전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문헌에서 알려진 작업환경성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을 대입하는 데에 무리가 있으며,
- ⑤ 기존의 문헌검토로 알려진 고무제조공정에서 분진, 흙, 휘발성 유기화합물, 유기용제의 독성과 현재 확진된 역류성 식도염, 심이지장 궤양 발생과의 가능성이 낮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 송○○에서 발생했던 심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은 업무관련성이 낮고, 변이성 협심증은 진단명이 정확치 않으나 작업 중 유해 물질 노출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